2020.2.20. 해외 제자 저녁 모임 나눔 1

1. 토마스 목사님 팀 – 굴루, 캄팔라

이쉬마엘 목사님: 토마스 목사님과 함께 굴루에 갔다. 굴루에 잘 도착했고 토마스 목사님 모세 목사님 파스칼 목사님과 첫 모임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 여러 곳에서 왔다. 마음이 열려 있었다. 이틀 동안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였다. 물론 힘든 일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이들에게 임했다. 12강을 전했고 반응이 좋았다. 57명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이 왔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계시를 받았다고 믿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는 계속 그 계시가 임하기를 바란다. 준비해주신 분이 또 다른 사람들과 대형 집회를 동시에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어려웠다. 지금 여기에 오신 목사님 연세가 있으신데 어떤 위치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1강부터 12강까지 계속 쭉 같이 했다.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렇게 성경을 본적이 없다고 전했다.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이게 꼭 필요했다고 얘기했다 이게 굴루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거기서 캄팔라로 왔다. 남수단에서 오는 버스를 타고 왔다. 72킬로 정도 나오니까 경찰이 우리를 멈추라고 했다. 탄 사람 중 한 명에 코카인이 있었다. 남수단에서 캄팔라까지 가져가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그 짐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찾아야 하니까. 결국 그 사람이 체포되었고 캄팔라로 잘 도착했다. 캄팔라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우리는 길을 잃은 것 같았다.

굴루 가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도 우리를 모르는 척 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계시해주시길 계속 기도했다. 그래서 첫날 집회를 시작했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계속했다. 포기 하지 않고 계속 했다. 인도해주신 목사님도 계속 왔다갔다 했다. 이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계속 질문 하라고 했는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계속 질문하라고 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질문을 허락하지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질문이 12강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토마스 목사님이 그들 안에 있는 그 영을 책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복음을 받는 것에 있지 않았고, 그들에게 있는 것에 추가하는 것이었다. 성경의 복음이 그들의 교리와 가르침과 안 맞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몇 명을 허락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지금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다. 계시를 받고 이것으로 뛰기 원한다고 했다.

토마스 목사님: 복음의 위대함을 본다. 복음이 어떻게 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지. 지금도 굴루에서 참여한 자들은 이 복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고 있고 마음에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신실함이 보였다. 제가 돈이 있었더라면 그 90프로를 다 데려왔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굴루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문을 여시는 것을 보았다.

캄팔라를 통해서는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는 것을 막는지를 보았다. 캄팔라 첫 날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이상한 것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도 있었고 첫 날에 듣고 둘째날에 오지 않았다. 마귀는 누구나 다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귀가 그 복음을 어떻게 캄팔라에서 막으려고 하는지 보였고 그렇지만 그 복음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도 서로 도우면서 어떻게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배웠다.

파스칼: 르완다와 여기는 비슷하다. 르완다도 서쪽, 남쪽, 북쪽 사람들이 다르다. 굴루에는 사람들이 아주 잘 받았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다. 캄팔라에서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사역은 좋았다. 사람들이 잘 받았고 캄팔라는 몇 명만 잘 받았다. 전체적으로 사역이 좋다.

남아공: 팀으로 활동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굴루에서 캄팔라로 사역을 하면서, 경쟁하는 게 아니었다. 팀으로 사역했다. 개인적으로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른 팀원들로부터 강의를 들으며 많이 배웠다. 다른 사람들의 계시 보다 내 계시가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공간이 없을 때까지 적었다. 하나님이 계속 계시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마귀의 활동은 항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캄팔라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은 마귀의 활동임이 너무 선명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같이 팀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혜를 주셨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강의를 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질문에 답하면 안 된다는 지혜를 주셨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준비하신 목사님이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이미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성령님의 인ㄷ를 받아 하나님께서 토마스 목사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책망하는 메시지를 할 수 있었다.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영을 책망하는 메시지였다. 모두에게 얘기하고 싶다.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함께 해야 한다. 이 계시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전체를 위한 것이다. 먼저 우리가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토마스: 교재를 잘 사용해야 할 것 같다. 교재가 성경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을 소화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세복하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볼 것이다. 우리가 그냥 이 교재를 두고 우리 자신이 이 교재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현장에 나갔을 때 많이 힘들 것이다. 어떻게 12강 27강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면 다른 곳에 가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교재로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은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의 나라에 쓰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다. 이것을 통해 성도들을 도와서 이들이 제대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12강 27강이 성경을 열 수 있는 열쇠로 보인다.

알렉스: 코티도에 갔다. 카라마죠에는 아무 아무것도 안 입고 천하나 걸치고 다닌다. 많은 전쟁과 싸움이 있던 지역이다. 거기 도착한 다음에 교회를 갔다. 사람들이 7-8개 마을에서 다양하게 모였다. 글도 못읽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목회자였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였다. 그들의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보였다.

그들에게는 사역을 위한 훈련 같았다. 첫날에는 45명 정도 참여했다. 그들이 온 마음으로 이것을 받았다. 첫 날에 7강까지 전했고 거의 마무리 되었을 때 더 나눠달라고 했다. 말씀을 정말로 받으셨다. 다음날에 다시 갔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전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참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이 토요일이었다. 일요일에 모든 팀원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다. 가서 한 강의씩 했다. 매우 깊었다.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말씀을 전하였다. 팀으로서 강의만 전하고 내용에 집중하는 것 다른 개인적 가능이나 신학적인 견해를 추가하지 않고. 그렇게 전하였다.

어떤 고등학생들이 마음 문을 열고 메시지를 받았다. 코티도에서 소로티로 주일에 떠났다. 준비해주신 목사님들을 만났고 대화를 했다. 다음 날에 모였고 기도했다. 그 전날에 미리 누가 어떤 강의를 해야 하는는지 말씀을 드렸다. 소로티는 코티도와 달랐다. 소토리는 조금 더 큰 지역이다. 감독들 은퇴한 감독들도 왔다.

첫날 79명이 참여했다. 많은 교회들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었다. 준비해주신 목회자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참여하는 게 처음이다. 목회자들은 뭘 하는지 잘 아는 분들인데 7강까지 다 들으셨다는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끝난 후에 대화를 했다. 너무 놀라웠다. 다음 날 또 다시 참여하셨다. 은퇴한 비숍들이 다음날에 또 오셨고 69명이 참여했다. 메시지를 받으셨다. 모든 것 이후에 우리에게 감사의 말씀을 주셨다. 돈을 주셔서 말씀드렸다. 우리는 돈을 받지 않는다.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팀을 만들었고 이 돈은 다른 마을에 갈 수 있도록 쓰시라고 했다. 그때 바로 팀이 형성되었다. 다른 마을에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다.

소로티는 열린 마음으로 받으셨다. 그냥 다른 강의 정보 그런 게 아니었다. 마음 문을 열고 계속 강조했다. 이건 동기부여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그 간증으로 봤다. 그들은 받았다. 그리고 이것으로 달리길 원한다. 짧게 얘기하자면 소로티는 제 개인적으로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다. 어떻게 이들이 복음을 받는지.

브라운: 이 팀에 속한 것이 감사하다.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었다.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 지역이 정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가지 않았구나 깨달았다. 그들은 양육 뭔가 훈련 이런 것도 받지 않았고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대로 성경 보고 한 것이다. 어떤 것이든 전했다. 이들을 축복했다. 메시지 하면서 일대일로 소통했다. 그들의 반응을 통해 이것이 이들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로티에 왔을 때 그곳이 큰 도시이고 많은 감독들이 있는데 이 미팅에 이들이 자신의 위치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었다. 그래서 너무 잘 받아주셨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고 이 복음을 감사해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뻗어나가게 할 수 있는 그 팀이 여기 왔다. 제 개인적으로도 깨달은 것은 팀으로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케테마: 하나님께서 팀을 잘 짜신다. 좋은 리더가 있었고, 코티도에서 문맹들이나 용사들이고 좀 두려웠다. 싸우시는 분들이라. 프로그램 하면서 코티도는 도시랑 좀 먼 곳인 것 같다. 사역자들이 그래서 사모가 되는 것 같다. 거기 도착했을 때 그냥 훈련 때문에 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보았다. 그냥 훈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강의자들이 람바노에 집중하고 45명에서 50명이 참여하였다. 소로티는 해방 교회 기독교 연합회 회장인데, 에코파이 목사님 때문에 마음 문을 여신 것 같다.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목사님 비숍, 전도자들. 앤드류에게도 감사드린다. 앤드류는 그 지역 출신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았다.

임마누엘: 코티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목사님들과 리더들이 이 집회에 감사해했다.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많이 걱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1강 2강을 들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1월에 말씀을 들었을 때 형제와 함께 만낫을 때 교재를 쓰지 않았다. 보산 세미나 때 교재를 매일 강의를 보기로 했다. 그래서 날마다 조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다. 그것으로 많은 준비가 되었다. 2020년에 저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다.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웠고 그것이 벌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15살이었을 때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어느날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이 팀을 만나기까지 계속 기도했다. 이번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제가 지금 보는 것을 보지 않고는 제가 지금 배우지 않은 것을 배우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프린스: 여기 있게 되어 너무감사하다. 한국을 떠났을 때 조목사님이 중남미 사역에 있었는데 모든 팀들이 함께 한다고 하셨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이사야 목사님이....(생략)

윌리엄: 아모라타에 첫 째날에 58명이 참여했고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경험과 비슷했다. 다른 복음이 저주받은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저주 받은 사람이었다고 고백했다. 다른 복음을 전했었다고 고백했다. 그들이 그것을 받았다. 그래서 합당한 자를 뽑는 것도 헷갈렸다. 다섯 명이 제한되었는데 5명 이상이었다. 그렇지만 그들과 대화하면서 5명을 뽑았다. 둘째날에는 64명이 참여했다. 그들의 반응이 너무 놀라웠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게 두려웠다고 했다. 다 마친 후 두 교회로 초청을 받았다. 이사야 감독님이 방문한 다른 형제는 함께 갔는데, 그분은 메시지를 듣지 못한 분이었고 주일에 처음으로 이사야 목사님을 통해 들었다. 아볼로와 비슷한 메시지를 했다. 잘 살아야 한다 등등 그래서 저는 브리스킬라 아굴라처럼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숙소로 초청을 했고 프린스 목사님이 왜 예수가 주이시고 구원자인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임을 설명했다. 그분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번호를 받았고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사야: 진자 지역..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아모라타에서 진자로 갔는데 10시간 정도 걸렸다. 10시쯤 도착했다. 다음날 아침에 집회를 시작했다. 복음이 간단하지만 감명깊에 전달되었다. 7강을 첫째날 동안 했고 다음날 5강의 12강을 전했다. 모든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했고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느껴졌다. 참된 복음이 전달되었다. 합당한 자들이 세워졌다.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 달리고 전하라는 것이 느껴졌다. 이 복음이 우간다에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이 잘 들었고 배우길 준비되어있고 복음을 좋은 태도로 잘 받았다. 그들의 온 마음으로.

그들에게 강의를 하고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이들이 강의 1강과 2강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이 복음을 어떻게 잘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하셨다. 이들은 이 복음의 계시를 받았다. 모두가 기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저희는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랑을 보였다. 분위기가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아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몇 가지 간증을 적었다. 9명의 목회자들의 고백인데 나중에 보여드리겠다.

프린스: 이사야 목사님이 같은 학교 출신이다. 가나에 있는 신학교에 같은 신학교 선배였다. 처음에는 몰랐느데 만나서 얘기하다가 알게 되었다. 복음에 대해 얘기했는데 기반이 있었다. 리차드 목사님도 방문을 해주셨었고, 15년 동안 교수로 계셨다. 그래서 가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강의를 보게 되었다. 이 복음을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잘 받은 것 같다. 우리 팀을 계속 만나고 얘기하였다. 강의를 잘 전할 수 있었다.

아모라타는 순회 팀이 첫 강의를 했고 그 이후로 계속 진행 했다. 4명의 비숍과 그중 2명이 여기 왔다.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잘 받는 것을 보았다. 네 개의 지역을 다 부르신 것이다. 주일날 방문한 교회에서 한 교수님을 전했는데 그분이 복음을 받았다. 다섯명 제한이 있어서 그분을 초청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팀의 리더로 오신 분이 25일 26일에 이분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할 계획을 하고 계셔서 지금 27강을 깊이 받고 계신다. 그 교수님을 만났던 그 교회에서 할 것이다.

진자는 사람들이 8개 지역에서 왔다. 정말 활동할 준비가 되어있고 정말 잘 받았다. 아모라타 보다 진자가 교육 수준은 좀 더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분들도 복음을 잘 받으셨다. 이 복음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 서로 각자의 나라에 꼭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사야: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이다. 에코파이 목사님이 이렇게 팀을 짰을 때 저는 토마스 목사님 팀에 있었다. 그런데 토마스 목사님이 변화를 주겠다고 했고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프린스 목사님 팀으로 갔다. 윌리암 형제는 라이베리아 사람이고 오위노는 우간다 자매님이었다. 이 하나됨이 너무 놀라웠다. 서로를 존중하는 게 너무 제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그랬다. 라이베리아 두 명, 가나 사람 한 명.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저만 제외시킬 수도 있었는데,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우리 팀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나서 우리 리더에게도 감사드린다.

윌리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가족 전체가 그것을 반대했다. 저는 세 명의 자녀가 있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깨달았을 때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고 복종하겠다고 했다. 저는 선택을 했어야 했다. 그 시간에 프린스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다. 우리는거의 1년동안 연락을 안했었다. 그런데 어떤 팀에 속해있다고 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를 알고 싶었다.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설명하시는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바쁘셔서 메시지를 안 보셨는데 나중에 문자를 주고 받고 안산에 초청해주셨다. 안산에서 복음을 받았을 때 마음에 안식이 느껴졌다. 프린스 목사님 만나기 전에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제 안에 있는 뭔가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거구나라고 느꼈다.

처음에는 다니던 교회를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들에게도 진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보산에서 집회를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오셨다. 복음을 들었지만 마음의 문은 열지 않았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계속 복음을 전했다. 설명하려고 했을 때 논쟁이 되었다. 이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진리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다. 그래서 복가교에 가게 되었다. 이 사역이 제 인생에 너무 큰 충격이 되었다. 제가 사람들을 인상을 주려고 살았구나 깨달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알게 되었다. 저를 지키신 이유가 저희 고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것을 취소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다시 갈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주실 거라고 믿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족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복가교를 통해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주셨고 그것을 고향에 가서 전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 저를 부르신 것 같다. 눈물이 나왔다.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고 위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감동이었다. 저는 다른 것도 없고 복음 밖에 없다. 복음 안에 있는 은혜까 충분하다. 이 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에 깊어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실수를 했으면 사랑으로 같이 돕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누군가 전할 때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서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박 목사님: 진행된 부분은 다른 팀과 똑같다. 한 가지만 생각했다. 우리가 왜 왔고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것으로 두 지역 사역을 했다. 첫째 지역은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는 채로 우리를 초대했다. 에코파이 목사님과 그냥 통화만 했다고 한다. 준비한 목사님이 혹시 이상한 것 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통화하고 이상하지 않다 해서 저희를 초청했다. 두 번째 지역 호이마는 에코파이 목사님이 한번 방문하셔서 메시지를 전하기는 하셨다고 한다. 정확하게 모든 메시지를 전하신 것은 아닌 것같고 서론 부분만 한 것 같다. 첫째날은 깊이 받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둘째날에 몇분이 복음을 깊이 받으셨다. 두 번째 지역은 아무도 받지 않으셨다. 두 군데 다 잘 준비된 지역이 아니었다. 우리가 뭘하는지 모르는 채로 받았고, 두 번째 지역도 에코파이 목산님을 만났으나 메시지를 잘 몰랐다. 좀 더 잘 준비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지역에서 하나님이 반전을 허락하셔서 5명이 깊에 복음을 받았는데, 우간다의 때라는 생각을 했다.

마이크: 저는 복음 안에서 가장 어린 사람인 것 같다. 처음에 조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냥 와서 전하는구나 별로 기대가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캐나다를 대표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가 배웠다. 가장 어린 저를 가장 경험 있는 한국팀과 같은 팀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박 목사님이 첫째날에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었을 때 두 번째 날에는 사람들의 눈빛이 빛나고 앤드류 목사님의 교회에 초청받았는데 얼마나 깊이 받았는지 정말 잘달하는구나 깨달았다. 목사님께서 그 교회 앞에서 내가 거짓 복음을 받았다고 회개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하셨다. 소수만 찾는다고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복음이 있고 번영 신학 치유 이런 것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복음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좋게 반응했지만 그것이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란ㄴ 것을 깨달았다. 정말 지혜로워야 하고 누가 받는지 이것은 정말 계시구나 주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어야 하구나.